

일레인 필립스 박사, 구약 문학, 강의 31, 남 왕국의 선지자들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구속자,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머리를 숙일 때,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각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학업이나 다른 짐으로 인해 압도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드러운 보살핌과 인도와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세대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가 될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준비가 그들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에서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주 아주 어려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앞서 말했듯이, 특히 시험과 관련하여 선지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런 요약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복습할 것입니다. 각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그 목록으로

돌아가서, 어느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는지, 어느 선지자가 저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금요일 시험에 나올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시도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연설하기 전에 그 나라의 우회로를 정죄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모스, 그렇죠, 좋아요.

그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때요? 어느 선지자가 그의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주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그렇죠. 그렇다면 요나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설명한 일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즉, 니느웨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자연 영역에 대한 그분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약간의 검토를 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부의 선지자들과 관련하여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부분의 시간을 이사야서에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부 왕국의 약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일종의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가는 세펠라에 나갈 예정입니다.

선지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세펠라가 흥미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조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낼 때 조엘이 예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부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좋은 추측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를 여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사야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훌륭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성서에 인용된 모든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받았는지 맞춰보세요. 알겠죠?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신약성서에서 더 자주 인용됩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해 두루마리에 대해 아는 분들에게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사해 가장자리를 따라 쿨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사본입니다.

그 두루마리 중에는 상당한 수의 성경 본문이 있거나 적어도 성경 본문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사본에 등장하지만 다른 모든 사본, 전체 두루마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야에 관해 사해 공동체에서 남긴 주석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사야에 관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사적 맥락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복수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것을 읽었다고 믿으세요. 나는 거기로 향했어야 했다.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착. 천천히 거기에 도착합니다. 비전.

여기에 이사야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는 상당히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 하준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 있다면

아호즈는 여러분의 컴퓨터 화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어쨌든 이사야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우리가 역사적 시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가 므낫세 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끔찍한 숙청 중에 순교한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랫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웃시야, 우리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연대를 약 685년까지로 잡았습니다. 글썄요,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길이를 명심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또 다른 사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즉 바로 지금 이 날짜에 주요 외국의 위협은 앗수르였습니다. 그렇죠? 주요 외국 위협은 아시리아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와 함께 터널을 건설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것을 보았고, 산헤립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앗수르는 이사야의 생애 동안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둘째 부분에서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 그 외에도 이사야서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4장 끝과 45장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언급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이 시간대에 내가 데이트를 하러 거기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그는 바빌론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이름도 짓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름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법령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후반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레스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당신은 아마 당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망명 생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이러스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539년에 이 법령이
시행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연대순으로 훨씬 뒤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 만약 당신이 예언적 예언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의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일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썼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도로 인도합니다.

지도가 여기에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것은 아시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쯤이면 여기 어딘가에 내 포인터가 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이스라엘이 올 때쯤이면요. 이사야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앗수르인들이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해보자
. 아시다시피, 성경 학자들이 구약성서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저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직면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가장 두드러진 예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사야가 퍼레이드의 예입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이 본문을 읽고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44장의 끝 부분과 45장의 시작 부분, 즉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붙인 두 구절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사야가 그런 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700년대나 600년대 초반에 살았던 누군가가 앞을 내다보고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539년까지 법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제목의 책은 이 나라의 캠퍼스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손에 두 번째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7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꽤 잘 사용되는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소개, 독자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이사야에 관해 말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두 개의 문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세계 문학에서 가장 숭고한 생각과 가장 기억에 남는 시를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일한 통일된 작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생산된 많은 예언적 신탁의 선집입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이사야의 글은 40년에 걸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작성되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분석한 학자들은 이 책이 적어도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각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저자와 헤어질 장소가 됩니다. 각 부분은 다른 기간과 다른 저자를 나타냅니다. 24~27장, 33~35장, 36~39장을 제외한 처음 39장, 이해하셨나요? 11개 장은 불행히도 바빌론과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기 때문에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예외를 제외하고 처음 39장은 주로 742년에서 700년 사이에 예언한 예루살렘 이사야의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좋아요, 이것이 섹션 1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앗수르가 아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제2이사야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 관한 내용을 읽다가 둘째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 저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쓰여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의 인물은 39장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스타일의 차이를 유지하세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체, 어휘, 신학적 관점은 새로운 작가가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6장부터 66장은 예언 시대 전체인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의 신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관례적으로 이사야서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을 각각 별개의 문학적 단위로 취급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요점을 이해하셨나요? 당신은 사이러스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텍스트의 분할이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처리합니다.

추정 저자와 날짜, 그게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부분인 40장부터 55장까지는 8세기가 아닌 6세기 어딘가에 나옵니다. 즉, 세계의 어떤 도도라도 사이러스를 보고 "아, 그래요, 그가 법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장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적어서 예언이라고 부르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희화화한 것 같지만 요점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바로 이 말을 할게요. 오늘 40분 후에 이사야를 만나겠습니다. 월슨 박사의 예언 문학 수업을 들어보세요. 그는 실제로 우리가 이 특정한 맥락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파고들 수 있는 수업이 다 있는데, 월슨 박사의 예언학 수업은 성경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놓칠 수 없는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사야를 상대할 것이다. 제가 스티븐 해리스(Stephen Harris)의 책에서 읽어드린 인용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스타일, 내용, 신학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우리가 서로 다른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사이러스에 대한 언급인 진짜 위험 신호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먼저, 다소 단순한 대답이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40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수업을 위해 잠언을 쓴 종이를 매달고 60세가 되면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60세가 되었을 때 쓰고 있는 글쓰기의 종류를 반영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당신이 그 시점에서 여전히 뭔가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쓴 글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글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이사야가 책의 후반부에서 형편없는 작가에서 정말 훌륭한 작가로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선지자의 인격이나 선지자의 시대를 억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성령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쓰기 스타일, 어휘, 신학적 관점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예언 문헌을 읽을 때 역사에 대한 시각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침략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호세아를 기억하시나요? 즉,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열왕기서, 즉 열왕기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엄청난 위기네요.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하고 강력한 정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읽었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우상 숭배는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것으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배가 그들이 한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관한 크고 긴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이 이사야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나중에 기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이사야가 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구절 중 일부를 보게 된다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전혀 무게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무게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포인트 2는 포인트 3으로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신랄한 정죄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사야가 고레스를 언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말한 것은 보라, 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읽어보셨다면 그 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나시며 시작과 끝을 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권자인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게 만들고 경배하는 우상들과 대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멍청하고, 눈이 멀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물체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우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여기 퍼레이드의 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한 언급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그 전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150년이 지난 후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괜찮은?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 비평가들은 동일한

신학적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나타납니다.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5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 모두에 있습니다.

괜찮은? 두 부분 모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동일한 주요 주제 중 일부가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월슨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로 당신이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의 큰 열쇠입니다.

응, 레베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동일한 주제와 표현 측면에서 정말 눈에 띄는 두 가지는 책의 두 섹션, 두 부분, 세 부분 모두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 불리신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당신은 이사야 자신이 8세기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익명의 이사야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3세기 이후의 신탁들도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 내 말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은 첫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이사야서 56장에서 인용하실 매우 분명한 구절과 다른 부분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아세라 예배의 휘장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언제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만약 그가 북왕국이 멸망하는 동시에 살고 있다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열왕기하 17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크고, 지저분하고, 혼합주의적이고, 추악한 것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응.

미안해, 첼시. 글쎄요, 제가 제안하는 바는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며 토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있다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음성이 줄곧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입니다.

집에서 망치질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흥미롭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거기에는 몇 가지 경고가 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없습니다. 아직 아님.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러한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통혼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명백히 드러났던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꾸준한 목소리는 없습니다.

트레버. 그래서 당신은 그가 8세기의 맥락에서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왜냐하면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배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너희가 계속 매춘을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레위기는 이전 주민들을 토해낸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알았어요? 조금 더 진행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중단한 부분부터 바로 채워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고이고 독특한 본성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 구절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비난에 대해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사야는 여기서 꽤 냉소적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들만의 아이러니와 빈정거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읽진 못하겠지만 맛은 이렇습니다.

44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제목을 알아냈나요? 꽤 중요한 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그것을 선포하게 하라. 그가 선언하게 해주세요.

그로 하여금 내가 내 백성을 세운 이래로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 앞에 알려 주게 하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십시오. 사진이 나오나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기에 무대를 마련하시고 누군가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 누군가가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게 하라.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오래 전에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또 있을까? 아니요, 다른 바위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는 우상을 만들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꼬는 말을 이어갑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모두 무가치합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 무지합니다.

누가 신을 만들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우상을 주조하느냐? 12절에 보면 대장장이는 연장을 가져다가 숯불에다가 작업합니다. 그는 망치로 우상을 만든다. 그는 자신의 팔의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나요? 아침 9시 30분에도 정신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대장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거기는 덥습니다. 이 금속을 망치질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져가면 가단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맞죠? 그는 배가 고프고 힘을 잃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두 금속 조각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목수는 줄로 측량하고, 마커로 윤곽을 만들고, 끌로 깎고, 컴퍼스로 표시하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되,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삼나무 등을 베어냅니다.

그는 그 중 일부를 가져다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나무 중 일부는 불을 피우고 빵을 굽기도 하지만, 그는 또한 신을 만들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는 나무의 절반을 불에 태운다. 그 위에 그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그는 '아, 따뜻해요. 불이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로부터 그는 우상을 만든다. 그는 그것에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그는 그것에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18절: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절반은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멀고 귀머거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라고 도전했지만 알 수 없는 우상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장의 맨 끝 부분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만물을 만들었고 하늘을 찢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폐하였으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나의 목자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라 하리라 이것이 아이돌에 대한 모든 도전의 종결이다.

알았어요? 일종의, 계속하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부터 두 가지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요? 케이트, 응, 그 사람은 성전에 있지, 그렇지? 그리고 그는 그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거기 스랍들이 있고 그들이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로다. 그리고 이사야는, 나는 망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다음 스랍이 와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이스라엘의 구속자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함께 가십니다.

글쎄요, 그러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이사야가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포옹하는 사람이 선지자 중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경 너머의 사람들의 하나님. 이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읽어보자. 2장 2절.

모두가 성전으로 스트리밍할 예정입니다. 모든 나라가 성전으로 올 것이다 .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6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이방인 곧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내 성으로 인도할 것이라 신성한 산. 적어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놀라운 약속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이 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듣나요? 누가 말합니까? 정답은? 응, 언제? 그분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강도의 소굴에 대한 비난인 예레미야서 7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는 성전 주변에 거대한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들이 거기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말했듯이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글머리 기호는 실제로 우리를 다음 다른 글머리 기호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읽게 될 49장 6절과 6절 후반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주님의 종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순간과 약간의 육체가 나옵니다.

그러나 6절 후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하인이 누구인지는 또 다른 전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베풀게 하겠다. 복음서 작가들이 영감을 받아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그토록 많이 언급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인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또 다른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온갖 종류의 훌륭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괜찮은? 여호와와 종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아마도 여기 마지막 줄, 즉 이사야가 묘사한 고통받는 종, 즉 도살장으로 끌려간 종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의 일부를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42장부터 우리는 그것을 향한 구축을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이 전체 부분은 일종의 노래의 순환이고, 그것들은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하인의 임무 중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종의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는 또한 국가들에게도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럼 42장에서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기 내 종, 내가 보고 기뻐하는 내가 택한 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어느 시점에는 신약성서에 등장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변형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인용하거나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암시합니다. 어쨌든 여기 내 하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맡길 것이다. 그분은 민족들에게 정의를 내리실 것입니다. 정의, 정의, 정의.

그것은 하인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중 일부를 구체화하고 실제로 지구상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됩니다.

6절 중간.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민족들의 언약이 되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며 눈먼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

그래서 빛도 이것의 일부입니다. 정의와 빛. 그것은 하인의 임무이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로 지명된 종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같은 장 18절입니다. 들어봐, 귀머거리야. 장님이여 보십시오.

내 하인 외에 눈먼 사람이 누구냐? 이런. 내가 보낸 메신저처럼 귀머거리입니다. 주님의 종처럼 눈이 멀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 같이 오류에 빠지고, 타락하고, 죄 많고 반역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에게 부름받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제 49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조금 더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5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태에서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가 다음 줄을 아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깨우다. 여호와께서 나를 태 속에 세우사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으시리로다 4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누군가가 종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초기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 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장들에서 우리는 원래 종이었던 이스라엘 측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회복하고 모으기 위해
지정하실 누군가를 통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고통받는 종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52장 끝에서 내 종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그는 높이 들리워지고 높이
들리워질 것이다. 그리고 물론 53장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약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방법.

멀시받고 버림받은 슬픔의 사람이시며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으며 하나님께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온 형벌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사람은 고통받는 하인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서 자랐다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기간에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응, 케일린.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 왕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종종 이 인물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응, 사라. 12지파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10지파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북왕국 사람들이 북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찢어진 것은 아니며, 아시리아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아셀, 스불론, 잇사갈 지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도 단지 전통일 뿐이고 꽤 좋은 전통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에 미국에 온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혈통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꽤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교적이라면 말이죠. 글썄,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사야가 메시아 인물에 대해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종은 분명히 여기서 큰 그림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다른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의로운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인에 대해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두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두 가지를 이해하려면 믿거나 말거나 돌아가서 약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아하스의 왕은 선한가, 악한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세요, 그렇죠?

이제, 아하스가 그의 통치 중 어느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 북쪽 왕국과 시리아 사이의 정치적 동맹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북왕국과 시리아가 아하스를 향해 뭉쳤습니다.

이것이 7장의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나가서 아하스와 맞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장 3절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스알야 습은 아하스를 만나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너무도 흩어져서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라말라의 아들뿐이니라. 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65년이면 꽤 긴 시간이군요. 지금부터 65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나이는 85세가 됩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하스는 지금 여기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결코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주님께 표징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간판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요시아에 관한 예언과 같이 장기적인 예언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예언이 일어날 것임을 아는 단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14절, 너희가 구하든지 말든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징조는 이러하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에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에 표시되나요? 마태복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압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관한 이 모든 사업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지 사인이란 지금으로부터 65년 후에 모든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원한다면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성경에 영감을 주시는 절대적으로 놀라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약 700년 후에 예수가 잉태되어 태어나게 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IV에서 처녀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번역을 읽으면 젊은 여성으로 보일 수 있으며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처녀를 뜻하는 흔한 정원용어가 아닙니다. 베틀라입니다. 정말로 처녀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엘마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이며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대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루고,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실 때 일어날 상황을 다루도록 절묘하게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의 아내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알야 슈 인데 , 우연히도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16절에 보면 그 아이가 그릇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즉,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가 13살이나 14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왕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표시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말했듯이, 마태가 그것을 인용하고 그 시점에서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그것의 완전한 성취를 훨씬 더 앞당겨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 파르테노스 .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8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읽을 때 이 문맥에서 다음 문맥으로의 연속성을 주목하십시오 . 계속해서 떠오르는 테마가 있습니다.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당신의 땅, 10절. 당신의 전략을 고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엠마누엘입니다.

그리고 18절을 읽고 나서 이사야가 말하노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밋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스라엘에게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표징과 상징이니라. 사진을 얻으시겠어요? 임마누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이 장 전반에 걸쳐 그 아이를 언급하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계속 읽으면서 주제가 나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는 이사야의 첫째 아이의 이름인 스알야 슈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그들은 기호이고 상징이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세요.

20절에서는 율법과 증거에 대하여 표적과 상징일 뿐 아니라 만일 저희가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빛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빛, 빛, 빛. 이제 9장을 시작합니다.

2절,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느니라. 이것은 강림절에 항상 읽혀지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전사의 부츠가 불타고 모든 전쟁 도구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애야, 알았지?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것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7장에서 언급된 이 아이는 이사야의 자녀 중 하나인 임마누엘이라고 처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9장에 나오는 아이, 즉 임마누엘이기도 한 아이, 이 모든 신성의 칭호를 갖게 될 아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아요, 테마는 모두 거기에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려면 세 장을 모두 살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요? 일종의? 글썄,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해요. 평화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는 53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1장에서 나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 된 자에게 놓임 등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계실 때 일어나서 선지자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을 읽으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성서 수업 시간에 그것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이사야에 관해 말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가와 요엘을 해야 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조각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외워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것을 알아두십시오.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6장에 등장합니다. 미가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이사야의 배경과 일치한다. 내가 말했듯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미가는 실제로 약간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들이 언덕이 많은 지역으로 침략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곳이 세펠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은 조금 더 힘듭니다. 미가서를 읽으면 4장이 이사야서 2장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오라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Micah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Joel에게 다가가고 싶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다면 여기 작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아, 그 많은 소선지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미가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결론을보세요.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현자들이 와서 이 별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헤롯의 궁정에 도착했고, 헤롯은 그곳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아, 베들레헴이구나 하고 미가 5장을 인용합니다. 물론 그들은 흥미롭게도 가지 않지만 미가는 갑니다.

미가를 그렇게 기억하세요. 좋아요, 메시아의 탄생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상고에, 영원에 근본이 되는 이가 네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미가 5장은 조금 후에 계속해서 그가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인용할 구절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미가를 그렇게 기억하세요.

분명히 이러한 다른 것들도 똑같이 중요하며 모든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 미가가 말하는 대상이 바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읽는 것과 똑같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 , 거짓말 , 허위, 불의 등.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조엘에게 가볼까요? 나는 Micah를 정말 빨리 해냈다는 것을 압니다. 응, 케일린. 응.

에베소서는 예언인가? 예, 그렇습니다. 사용되나요? 지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설마. 유대교에 속한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인 다윗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수에 관해서는 예수 당시에도 다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되나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은 없나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방식에 있어서 단일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 등의 측면에서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내에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 재건을 계획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모으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글썄요, 역사 전반에 걸쳐 거짓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역사, 특히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 가지 간단한 메모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누군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연대순 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랬죠.

그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을 할 때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에는 연대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기원전과 서기 1세기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급증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조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을 위해 사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보관된 자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1915년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 잡지는 꽤 오래됐어요.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시점에, 그 옛날부터 읽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메뚜기 재앙을 겪으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장비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고, 훌륭한 기사를 썼던 누군가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전염병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어땠는지에 대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나무와 나뭇잎을 먹는 작은 나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뚜기 재앙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어쨌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팔레스타인으로 메뚜기 떼가 유입되는 일은 성서에 나오는 고대의 침략과 동일하게 비교됩니다. 여기 메뚜기가 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좋아, 계속하자.

이번에도 이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미풍에 메뚜기들이 휩쓸려 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것들은 아마도 한 지점에 바나나나 대추야자가 있었을 것 같은 야자수 줄기 전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나요? 이렇게요, 응.

그렇죠, 좀 어렵네요. 메뚜기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요엘서에만 메뚜기를 뜻하는 네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해보자.

1장 7절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메뚜기가 들이닥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그다지 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집 벽에 있어요.

아주 맛있는. 여기저기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긴 드레스를 입고 밑에는 속치마를 많이 입었습니다. , 오른쪽? 1915년대와 1920년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들이 입고 있던 모든 것이 메뚜기 떼에 들끓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밤에 옷을 벗을 때 입고 있던 옷에서 수백 개의 옷을 털어내곤 했습니다. 좋은 물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느낌을 주기 위해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보고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때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엘이 글을 쓸 때, 그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세 가지 주요 작물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을 군대의 침입에 비유할 것입니다.

메뚜기는 문자 그대로 메뚜기일 뿐만 아니라 침략하는 군대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감은 모든 것은 주의 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 5장에서 주님의 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엘도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결산의 날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이 상징적인 일만 하지 마십시오(2장 13절).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일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게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그 물건을 찾아야만 한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하늘과 땅에 피와 불, 연기 등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있을 것임이임이니라.

내가 당신에게 언급했듯이 Peter는 그것을 인용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동로마 제국의 먼 곳에서부터, 사실은 멀리 로마까지, 그리고 그 너머, 동부 지역까지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등입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이 특별한 행사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앉아 있습니까? 오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축제죠? 주간 축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칠칠절입니다. 3대 순례자 축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하여 충분한 언어를 말하고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므로 메시지가 그들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과 그 사이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재림과 관련된 천문학적 징후. 그러므로 이 이후는 여러분이 교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를 실제로 포함하는 아주 긴 이후입니다.

알았어, 그만둬야 해. 다시 말하지만, 시험 8시 45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